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부분 조업 재개

- SK하이닉스 화재사고 여파로 지난주 DRAM 현물가격(DDR3 2Gb)은 1.95달러로 전주 대비 23% 상승
- 화재를 당한 SK하이닉스 중국공장 중 피해가 없는 라인은 7일(토)부터 일부 가동 재개
- 향후 복구 경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4분기 글로벌 DRAM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기 때문에, 당분간 DRAM 가격 강세기조 이어질 것으로 보여, DRAM 경쟁사들의 수혜 예상됨
- 보유재고 물량(약 2주분)과 DRAM 가격 상승으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 향후 전체 라인 복구 정도와 가격에 따라 4분기 실적 영향도 좌우될 것

What's New:

8일 일요일 오전 SK하이닉스 측은 화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피해가 없는 생산라인 한 곳이 7일부터 일부 조업 재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라인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당국의 협조 하에 본사에서 급파된 100여명의 전문기술 정비팀과 협력사들로 24시간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설비가 재설치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사고 이후 DRAM 현물가격(DDR3 2Gb)은 이틀간 22% 급등한 데 힘입어, 지난 주말 대비 23% 급등했다.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1.95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2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alysis: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배관 및 스크리버 교체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라인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시험 가동을 마치고 완전 정상화하는 데는 적어도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향후 DRAM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 따라서, DRAM 현물가격의 강세기조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DRAM 경쟁사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편, SK하이닉스의 월 DRAM 생산량은 2Gb 기준으로 약 5억개 수준이며, 이중 우시에서 약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SK하이닉스의 DRAM 재고량이 약 2.5억개(약 2주분 분량) 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차질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물량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가격상승으로 매출액 상당부분이 이 일정부분 매출액을 메워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10월 이후의 상황인데, 이는 회사측의 향후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4분기 공급 차질 분을 예상해 보았다.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첫 달(9월) 웨이퍼 투입 물량 차질은 20% ~ 70% 사이
- 2) 이후 매달 차질 물량의 절반을 복구
- 3) 12월부터는 완전 정상화
- 4) 9월~11월 투입된 웨이퍼가 12월 출하량으로 잡힌다고 가정

표 1. SK하이닉스 월별 물량 차질에 따른 글로벌 DRAM 공급차질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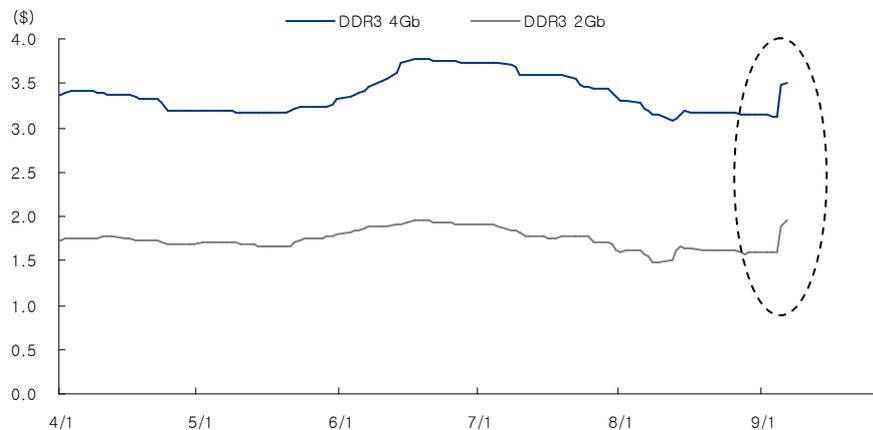
	SK하이닉스 월별 생산 차질 비중					
	20%	30%	40%	50%	60%	70%
9월						
10월	10%	15%	20%	25%	30%	35%
11월				13%	15%	18%
4Q 물량 차질(백만개, 2Gb)	75	113	150	219	263	306
글로벌 DRAM 공급차질	1.7%	2.5%	3.3%	4.9%	5.8%	6.8%

자료: IBK 투자증권

이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할 경우 4분기 글로벌 DRAM 공급 차질분은 대략 2Gb 기준으로 대략 7,500만개~3억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DRAM 총 공급의 약 1.7%~6.8%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DRAM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격 강세기조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RAM 경쟁사들의 실적 및 주가에는 당분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공급부족 정도에 따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출렁거릴 것이기 때문에, 물량과 가격의 함수로 결정되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 차질 규모를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실적추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회사측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DRAM 현물가격 추이



자료: DRAM Exchange